

월요광장

작은 책방에 거는 기대



송 광 롱
시인·문학발행인

최근 작은 책방들이 늘고 있다.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1625곳이던 서점은 2015년 1559곳으로 줄었지만 특색 있는 동네 책방은 늘었다. 올해엔 서울 60여 곳을 포함해 전국에 150여 곳이 생겼다고 한다. 광주만 해도 몇 개의 이름이 얼핏 떠오른다. ‘숨’, ‘검은 책방 흰 책방’, ‘파종모종’ 등등.

이들 작은 책방은 일종의 ‘테마 책방’이며 ‘열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여행, 시와 소설, 지역 등 일정한 범주의 책을 판매하고 영화 상영이나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같은 행사를 연다. 책방에서 커피와 술을 마시며 밤을 새우거나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책을 매개로 하룻밤을 보내는 ‘북 스테이’를 열기도 한다. 학습물과 베스트셀러 위주인 기존의 동네 서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바뀌 말하면 작은 책방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책방이 아니다. 계절로 따지

면 사계절 중 ‘봄의 책방’이라거나 ‘여름의 책방’, ‘가을의 책방’이라는 포즈다. 나는 ‘겨울의 책방’이니 윈치 않는 독자는 다른 계절의 책방으로 가시라는 뜻이다. 거대 자본의 시대에, 고객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좌판을 벌이고 보는 백화점의 시대에 썩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행보다.

그런데 반갑다. 비좁은 주택가 골목이나 후미진 건물 2,3층에 숨은 듯 자리한 작은 책방들이 돌올하게 다가오는 것은 예외일까. 그런가하면 도시가 아닌 시골에도 작은 책방들이 생기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충남 홍성의 그물고출판사는 ‘책방 느티나무’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의 요청으로 출판사가 보유한 책과 헌책방에서 구입한 책들로 꾸몄지만 운영자도 장부도 없는 무인점포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 출판사의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출자로 마을도서관도 운영한다. 청소년을 위한 한화방과 마을카페의 운영에도 참여하고 마을 소식지도 함께 만든다.

전북 고창의 ‘책마을 해리’도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을 이야기, 마을신문 해리’를 발간한다. 폐교를 단장해 터를 마련한 ‘책마을 해리’는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을 넘어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써서 책으로 발간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다. 이제 막 한글을 깨친 동네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책으로 펴내는거라면 어린이·청소년들이 ‘출판캠프’에 참여하여

책을 읽고, 쓰고, 발간할 수 있다. 경남 통영에 있는 출판사 ‘남해의 봄날’은 게스트하우스 ‘봄날의 집’과 작은 서점 ‘봄날의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다녀간 사람이 2천 명이 넘는다. 골목 안 폐가를 직접 페인트칠 하며 6개월 만에 완성한 이 책방은 4평 남짓에 불과하지만 책방지기의 월급을 주고도 남을 만큼 책이 팔린다고 한다.

“처음 우리가 이 작은 마을에서 책방을 열게 된 것은 지역 이웃들과의 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책방 덕분에 우리는 많은 이웃과 스스럼없이 삶을 나누었다. 우리 뒷집 할머님의 소원은 책방 가까이 사는 것이었는데 그 소원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으며, 반찬 값을 아껴 한 달에도 수십 권의 책을 사러 책방에 오신다.”(‘남해의 봄날’, 정은영 대표)

이들 책방이 반가운 것은 더 이상 낯익은 세계에 머물지 않고 낯선 세계를 향해 길을 떠났기 때문이다. 모난 달이 정맞이 딱 좋은 세상에서 고개를 한껏 곧추 세우기란 쉽지 않다. 책을 만들고, 팔고, 사는 사람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그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 상품 이전에 책이 소통의 매개라는 것을 이웃과 함께 실천한다는 것, 이런 말들이 과장된 것이라면 한 걸음 양보해 그저 낯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낯선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익숙한 것에 대한 반성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낯설다는 것은 때로 새롭다는 것이다. 어쩐지 조심스럽고, 조금 불편하고, 그러면서도 상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낯설다는 것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서 상대와 나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너는 너답고 나는 나답다는 것이다.

물론 작은 책방들이 떠나없이 새롭다는 말은 아니다. 이들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막상 찾아가 보면 빈약하기 그지없는 책방의 면모나 술집을 받들게 하는 영업 방식이나 몇몇 작가들의 끼리끼리 문화에 실망하는 독자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낯선 것들에 한 표를 주고 싶다.

낯익은 것들의 편안함과 지루함보다는 낯선 것들의 불편함과 긴장감에 기대고 싶다. 그동안 나는 너무 익숙한 것들의 안락의자에 나도 몰래 주저앉을 만큼 지쳐 있었으니까. 얼지않는 나를 이쯤에서 그만 일격으 세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 왔으니까.

뒤뚱거리는 아이들에게는 걷는 것도 신기하다. 이제 막 걸음을 땀다는 것,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것, 입술을 딱딱거리려 제 의미를 입 밖으로 던져 보겠다는 것. 그러나 이제 작은 책방도 독자도 소통을 위해 서로 노력할 일만 남았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의료과실에 대한 태도 차이



조 영 희
변호사

어느 유명 연예인이 2년 전쯤 역시 연예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유명해진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유명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유명 의사는 소송 중에도 비슷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또 다른 사망자가 발생해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를 당하였다. 이 유명 의사에게 실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사고에 대처하는

그의 태도, 즉 자신이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계속해서 유사한 의료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그의 행동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의미한다. 의료과실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그 전문성과 폐쇄성, 의무기록에 대한 접근의 불용이성 등으로 인해 환자가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은 의사의 치료 도중이나 치료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과실에 대한 사건을 진행

하다 보면 아직도 증거의 편재성 등으로 인하여 환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은 너무 멀고도 현한 길이다.

이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많고 의료상의 과실을 대하는 의료진의 태도는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즉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잘못의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진심어린 사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의료진은 우선 자신들은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렵게 의료상의 과실이 밝혀지더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의료상의 관행이라거나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 일쑤다.

의료상의 과실과 관련해 단적으로 비교되는 두 건의 소송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사건이 진행될수록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던 것이 명백해지는 사건이었고, 다른 사건은 의료진이 살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그것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의료상

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열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이었다.

첫 번째 사건의 의료진은 자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일어난 불행한 결과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조정에 응하였다. 두 번째 사건의 의료진은 자신이 범한 잘못은 전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잘못에 불과할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을 견지하였다.

의료행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실수가 개입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상의 관행이라거나 단순히 다른 의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상 무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는 현대 의학기술이나 의학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상의 관행이 아닌 실제 현대 의학기술이나 의학원칙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환자의 불행이 최소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진의 불행 또한 최소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 고

문화는 있고 문학은 없다



임 원 식
광주시인협회장

문화수도 광주에 문화는 있지만 문학은 없다면 지나친 말일까. 지방화 시대, 유·무형의 문화 요소가 관광자원이 되는 시대다. 광주에는 광주비엔날레, 광주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국내외 문화 행사가 있지만 문학과 관련된 행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광주에 문화적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풍부하다. 하지만 이를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용아(龍兒) 박용철(1904~1938)만 해도 그렇다. 교과서에도 실린 그의 시 ‘떠

나가는 배’를 모르는 이는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가 광산구 소촌동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나두아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두아 간다” 그의 대표작 ‘떠나가는 배’는 어딘가 정박지를 찾아 떠나가는 ‘배’에다 인생을 비유한 작품이다.

그가 처음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본 유학 시절 강진의 영랑(永郎) 김윤식(1903~1950)과 교우로 지내면서부터라고 하는데 1930년대에는 사재를 털어 문예잡지 ‘시문학’(詩文學)과 ‘문예월간’(文藝月刊) 등을 간행하기도 했다. 또한 그가 주재하였던 시문학사에서 1935년 같은 시문학파 동인이었던 정지용의 ‘정지용시집’과 김영랑의 ‘영랑시집’을 간행함으로써 한국서정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평양 출신이지만 광주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다형(茶兄) 김현승(1913~1975) 시인도 빼놓을 수 없다. 목사였던 아버지의 목회지(牧會地)를 따라 제주사에서 유

년시절을 보낸 시인은 7세 되던 해에 전라남도 광주로 이주하여 기독교계통의 숭일학교를 다녔다. 1950년대에는 조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1951~1959) 많은 후학을 양성했으며 6·25 전쟁으로 국내 모든 문학지 발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계간지 ‘신문학’(新文學)을 광주에서 6호까지 간행하기도 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깊어가는 가을 우리 국민 누구나 한 번쯤 읊어 보았을 시 ‘가을의 기도’의 일부다. 커피의 시인, 절대 고독으로 대표되는 시인이 살았던 양림동 집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지역의 문인의 삶과 작품을 널리 알리고 이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경남 하동군 평사리에는 최참판대 등을 재현해 놓은 토지 민속 문학마을과 박경리문학관 등이 있다. 그곳에는 일반 관광객은 많은 문학인들이 찾아

움으로써 문학기행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매년 가을엔 토지문학제를 개최하고 있으니 부럽기만 하다.

그리고 지난 2013년 ‘봄봄’의 작가 김유정(1908~1937)의 고향 마을인 춘천시 신동면 실례마을의 신동우체국에 김유정우체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곳에 가면 소설가의 이름을 딴 김유정역도 있어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한다.

우리 광주도 늦었지만 이제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할 때다. 용아 박용철 생가가 있는 광산구와 다형 김현승 생가가 있었던 양림동 일대를 지역 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개발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도록 해야 한다.

국내 관광객은 물론 5·18광주민주화운동, 광주비엔날레, 중국의 3대 음악가인 정음성 생가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문학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광주 문학과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社 說

광주교대 총장후보 퇴짜 도대체 이유가 뭐가

교육부가 광주교육대 총장에 대한 임용 제정을 거부했다. 지난 18일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광주교대에 보내 총장 후보를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현 총장 임기를 불과 나흘 앞둔 상황에서 대학 수장(首長)의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광주교대는 간선제 방식의 총장 선출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1일 총장임용추천위원들의 선거를 통해 제7대 총장 후보로 두 명의 교수를 선정, 연구윤 리위원회 검증을 거쳐 9월 8일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 후보 2명에 대한 총장 임용 제정 거부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총장 후보 재추천에 대한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총장 후보 추천 이후 한 달 넘게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가 현 총장 임기를 불과 나흘 남겨 놓고 신임 총장 임용 제정을 거부했다.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걸까. 향간에는 교육부의 ‘얼굴마담’ 설이 파다

하다. 교육부가 총장 임명에 대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되었던 경북대 총장 임명 거부 사태나 최근의 방송통신대 총장 임용 거부를 놓고 떠도는 소문이다.

물론 학내에서는 이번엔 교육부에 울린 두 명의 후보자들이 약간의 하자 가 있다가거나 총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투서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디 그런 이유가 사실이기를 바라지만 향간의 소문대로 교육부가 총장 임용에 있어서 형식적 협의만 할 뿐 스스로 결정할 수조차 없다면 이는 한심한 일이다.

총장 임명의 진짜 결정권자가 교육부 장관도 모르는 ‘밀실(密室) 권력’이라면 이는 유신독재 시절이나 가능한 얘기 아닌가. 이번 광주교대 총장 임용 거부 사태 역시 모종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속 시원하게 임용 거부 이유를 밝혀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백남기 농민 부검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경찰이 23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은 시도했다가 유족 반대로 철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홍원선 서장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백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백남기투쟁본부와 유족들이 스크럼을 짜고 몸매 쇠사슬을 묶은 채 강하게 반발하자 유족들의 뜻을 받아들이며 “오늘은 영장 집행을 중단한다”며 철수했다.

경찰이 부검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영장 집행 시한이 25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으로부터 부검영장을 발부받은 후 영장 집행을 위해 유족 측에 6차례 협의의 공문을 발송했었다. 경찰은 철수하면서 영장 집행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도 부검영장 집행은 시한인 25일까지 몇 차례 더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영장 발부 과정을 되돌아 본다면 힘으로 밀어붙일 상황이라니란 것이 명백하다. 법원은 당초 경찰의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부검이란 사망 원인 규명이 필요할 때 실시하는 데 백 씨 사망의 경우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경찰의 재청구에 유족의 뜻을 반영하라는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경찰이 강제로 영장 집행을 할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법원의 영장 재발부가 국민의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무모한 영장 집행 대신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이화여대 전신인 이화학당 여사는 1886년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턴 여사가 자신의 집에서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여자가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상상기 어려운 시대였던 데다 서양 여자가 가르친다는 이유로 자식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없었다. 초창기 세 명의 학생으로 이화학당을 운영했던 스크랜턴 여사는 학생 모집이 힘들었던 탓에 학비를 받기는커녕 학생들 집에 곡식을 보내주는 등 학부모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다.

애초 이화학당은 한문을 가르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오랑캐 학교라 한문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수군대자 할 수 없이 한문을 가르쳤다. 그러나 여선생을 구할 수 없어 환갑이 넘은 남자 선생을 채용한다.

문제는 ‘남녀유별’을 지키던 시절이라 선생님은 학생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첩판을 보면서 수업을 했다. 수업시간이 되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복도에서 선생님이 헛기침으로 신호를 보내고,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정박으로 돌려 얼굴을 피했다. 이어 헛기침을 다시 하면 수업이 시작됐고, 마지막 헛기

침에 학생들이 일제치ang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선생님은 그 사이에 교실에서 서나갔다.

현 정부 비선 실제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이화여대 사태를 촉발한 그의 딸 정모양, 이들 모녀로 인해 정국은 물론 대학가마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정 양이 수강한 과목의 이모 교수는 학생 공지사항을 얼굴도 보지 않고 문자로 알리고, 정 양은 과제 제출을 리포트가 아닌 문자 메시지로 형태로 전 등 학부모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다.

특히 이 교수가 최

이화학당

근 1년 세 55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 구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지자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시점상 이 교수의 연구비 수주와 정 양의 학점 취득 편의를 연결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이화여대에는 ‘의류학과 내막’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내걸렸다. ‘(교수로서)학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라고 힐난하는 내용이다. 최순실 모녀와 얽힌 교수들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할 것이다.

/채희홍 사회2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월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